목장 모임 인도자가이드

Life-Changing Small Group

2021. 7. 4. 주일설교 **"나는 제자입니다(베드로)"** (요 1:40-42)

DONGAN CHURCH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찾아오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요1:40-41, 눅5:4-5)

☞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이 예수님을 좇아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안드레는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은 누구시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일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앞에 죄인임을 고백 할 때,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과 제자의 길을 걷는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석위에' 세워질 교회를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변화된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뭐라고 불러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요1:42)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반석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교회', '바위와 같은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며 그에게 '게바'라는 별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순종할 때),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 "**반석**위에 세워질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서의 추구하는 핵심 단어들을 생각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이 넘치는 제자, **행복**한 제자, **경청**하는 제자, **성실**한 제자...)

사랑, 행복, 경청, 성실, 정직, 섬김, 공정, 절제, 중용, 여유, 질서, 자유, 순수, 집중, 결단, 신뢰, 겸손, 순결, 긍정, 침묵, 배려, 용서, 조화, 창조, 열정, 나눔, 지혜, 지혜, 충성...

3. 베드로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닷가의 옛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기록해 보고 그 의미를 묵상해봅시다.(벧후3:18, 마 16:16, 요21:15)

☞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잊지 않고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 삶과 증거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옛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신과 패배자의 삶을 살던 베드로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의 아픔과 옛 과거의 잘못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사명자의 삶을 부탁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입니다.